

사·부·대·중

수행자가 된다는 것

결제철이 되면 공부가 시작되기 전 대중 소임을 한다. 누구나 한 가지씩의 소임을 맡아서 한철을 별 탈 없이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한다.



홍승 대구 부도암

대중처소에서 철을 나본 스님들은 누구나 경험을 한 것이겠지만 힘든 소임은 피하고 싶은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그래서 인지 중소임(重所任)이라

고 하는 큰방 부전이라든지 후원의 공양주나 별좌 소임을 맡겠다고 자원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 대중중사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어찌 되었든 자신의 소임이 정해지면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대중의 결정에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이 우리 승가가 갖는 대중공사의 장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은 화합대중인 승가의 전통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스님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면 미리 힘든 소임을 피하기 위해 힘든 소임을 살리지 않는 선방을 골라가며 방부를 들인다면, 만약에 자신에게 힘든 소임이 주어지면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사를 표현하는 스님들도 있다.

이중 되면 구참 남자들이 설득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막무가내로 힘든 소임을 맡기면 짐을 싸서 가겠다고 하는 스님들도 간혹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더불어 승가의 세속화가 그 원인이 아닐까 한다. 지나친 개발위주의 정책에 편승한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되어, '오로지 나만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사회풍토, 이런 사회 속에서 항상 경쟁하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들의 사고방식이

나만 출세해서 잘살면 된다는 개인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바로 이런 사회풍토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수행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속세에서의 삶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린다는 것은 뼈아픈 인내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행자라면 누구나 걸어가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수행자들 스스로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는지, 편안함만 추구하려는 내태심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경계하는 마음이 아닐까.

목탁소리

군법사와 종교편향

김두식 (취재1부 기자)

국방부 군중실이 펴낸 군정령 선도책자 (사교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백과)가 기독교 편향 내용으로 기술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15일 군중장교의 상담업무 보조자료로 편찬된 이 책은 '신앙공동체', '하나님', '영적 성장', '신 안에서' 등의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며 성경을 권장하는 선도지침을 제시하는 등 기독교를 교묘하게 선전하고 있다. 교계는 이에 대해 팔은 안으로 긁는다고 이 책의 편집위원 10명 전원이 군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중장교들에게 편집위원 선발 공문을 하달했고 상담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군중장교를 우선 선발하다보니 군법사나 군신부는 해당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를 맡고 대학교수나 종교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어도 충분한 일이었다. 책자에 대한 물의가 빚어지자 국방부는 종교편향적인 내용들을 인정하고 군법사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해 내용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더 실망스러운 것은 군법사들이 이같은 종교편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불교정책을 대변하는 국방부 군중실의 한 법사는 편집위원이 전문 군목사로 선임된 문제는 물론이 책자를 감수하는 과정에서조차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모 법사는 "종교편향이 아니냐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라"는 요구까지 했다.

국방부 군중실의 편향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군법사들의 상황인식이 이 정도라면 불교계에 '종교편향'을 운운할 명분이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거대한 독도 작은 구멍이 원인이 돼 결집할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 군포교를 저해하는 주요인이 종교편향인 아닌 '스스로의 태만'임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군중장교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담활동이다. 특히 장복무를 한 군법사들은 상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성직자라는 점에서 굳이 석사학위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 경험 많은 3개 종교 군중장교들이 실

“환경 살리는 ‘대안화폐’ 아시나요”

봉사·물품교환등 ‘품앗이 운동’

지역공동체 30여곳 제도운영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대안화폐(노동력 또는 물품)를 수단으로 공동체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통화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통화운동이란 현대적 의미의 '다자간(多者間) 품앗이' 제도로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신 그 대가로 자기자신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타인의 기술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통화 창출운동이다.

전세계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거래 물품과 서비스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어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가사서비스에서부터 물품 제공, 각종 교육프로그램까지 지역통화로 거래되고 있다. 소매점은 물론 지방기업이 지역통화로 소비자 직접 거래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거래 안정성 확보 지역화폐 운동은 아직 초기 단계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득연박사는 "지역 교환 거래망이 결성되고 나서 오래지 않아 해체되는 예도 있고, 해체되지 않



▶물품교환교육원은 10월22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지역통화 운영단체들과 함께 지역통화를 소개하고 직접 거래를 해보는 홍보장터를 열었다.

지구촌 10만여명 회원

‘나눔의 공동체’ 지향

있다면 하더라도 교환거래 자체가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예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내사’ 광범모 간사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지역통화가 거래되면 회원 규모에 짐작하기 보다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역통화운동 관계자들은 회원들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래품목을 확보하는 것, 단순히 자원봉사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번 만큼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지역통화와 법정화폐를 호환하는 것 등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불교적 의미

지역통화운동은 돈을 갖지 않고도 물품과 노동력(서비스)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사람 누구에게나 잠재된 기술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 특히 공동체 운동이자 대안환경운동으로서 사부대중 공동체를 지향해 온 승가(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공동체

1980년대 중반 캐나다에서 지역통화 운동이 생겨난 뒤 98년 시민단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과 불교환경교육원이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했다. 현재 지역통화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공동체는 전국적으로 30여곳에 이른다.

지난 11월 2일에는 지역통화운동을 운영하는 30여 단체들이 처음으로 모여 지역통화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지역통화 운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풀뿌리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요즘처럼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통화 운동이 사회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고,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외 지역통화 운동 현주소

지역통화 연구자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1000여개의 지역통화체계에 1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지역통화에 녹색달라, 아이즈(시간), 미래통화, 생태화폐 따위 다양한 이름을 붙여 쓰고 있다.

영국에서는 92년 5개의 지역통화체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350여개로 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년 34개이던 것이 지금은 200개가 넘는다. 영국에서 1년 동안 이뤄지는 거래활동 규모도 210만파운드(약 36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불교환경교육원 '두레 시스템'

참선·청소·정보검색 등 다양한 교환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은 지난 98년 9월 지역통화 '두레' 통화소(通貨所)를 출범시켜 각종 서비스와 물품의 교환거래를 하고 있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을 등록받아 청소·우편물 발송 등 단순노동과 행사(법회) 사회자 및 안내자, 한문·외국어 번역 업무, 인터넷 정보검색, 컴퓨터 기술자문, 비디오 촬영편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선·요가·선무도·불화 지도, 경전 번역 및 지도, 사

찰 건물 보수, 공양주 일, 사찰주변 청소 등 거래가 가능한 불교관련 서비스와 물품(불화, 불상, 불서, 다기 등)은 무공무전환 회원 기반이 넓어지면 교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두레시스템은 이렇게 운영된다. 예를 들면, 고2 학생을 둔 A보살이 B 사찰의 법당을 청소하면, 대학생 C보살이 A보살의 자녀에게 과외공부를 무료로 지도한다. A사찰의 주지스님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 C보살에게 불화를 가르친다.

의 친환경적인 생명공동체에 부합된다. 83년 캐나다 코복스밸리에서 마이클 린튼에 의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이 운동은 물질주의의 폐해를 극복해 온 불교사상과도 맞아떨어진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자본에 종속되는 사람의 비인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소유와 소욕지족,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운동은 하나의 실험적 불교사회운동이 되기에 충분하다. 최근 중증무진의 인드라망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어, 불교계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사찰 신도 등 불자를 회원으로 시작하는 이 지역통화운동이 성공할 경우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추구하는 불교도농공동체처럼 사찰이 생명살림 활동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통화운동의 마지막 목표는 돈에 의한 소외와 단절의 고리를 끊고 공동체를 회복해 자연에 순응해 사는 소박한 자립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등록비는 전액 '두레' 화폐로 계산되므로 현금에 전혀 들지 않는다. 회원 가입을 원하는 불자는 먼저 지역통화 두레 등록소에 계정을 가져야 하며, 계정 등록 비용은 5,000두레이다.

거래시 먼저 등록소에 상대방의 신뢰도를 문의한 후 거래하면 효과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 후 구매자는 반드시 운영자에게 거래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모든 거래는 '두레 시스템'을 계정을 개설한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체임을 규정한 거래 기본 동의서에 합의한 뒤에 진행된다.

두레화폐와 현금의 비율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거래 후에는 현금을 제외한 두레 액수만 등록소에 전화로 알려주면 된다.

지역통화 운영단체

Table with 2 columns: 단체명 (Organization Name) and 전화번호 (Phone Number). Lists various Buddhist community exchange group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점찰대법회' (Jumchal Daebap Hui)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about enlightenment and Buddhist teaching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temple.

Advertisement for '다담선(茶湛禪)을 알고 다도(茶道)를 하는가' (Do you know Dadasun and practice Dado?). Promotes tea ceremony and Buddhist practice, featuring a 'Tea Poem' (茶詩) section.